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0호 【루게 제24743호】 주제 103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평양시군민대회 진행

【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공화국을 기어아얍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대조선《인권》소동을 단호히 규탄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보복열기는 하늘에 닿고있다.

우리 민족의 신성한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원수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유엔무대까지 더럽히면서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을 남조해내는 극도의 위협제선에 이르렀다.

지금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거둬들이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된 이 특대형모략극을 우리의 주권전복을 노린 대조선압살정책의 가장 극악한 최신판으로 준렬히 단죄하며 남강도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광란적인 모략소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릴 철칙의 의지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기 위한 평양시군민대회가 25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김일성광장은 파멸치한

정치사기극의 극치인 또 하나의 반공화국모략극을 남조해낸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선군의 서슬푸른 총대로 무자비하게 쳐부실 원수격멸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차고 넘쳐있다.

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전문학교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란이 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들뜨우자!》,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조작해낸 《인권결의》라는것을 전면 거부, 전면배격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자!》,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와 《결사

옹위》, 《일심단결》, 《최후승리》라고 쓴 글발들이 광장주변건물들에 드리워져있었다.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일군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사회주의조국을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무관단성원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대회는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장령 사령님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주제의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켜선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제 인민군장병들은 지금 남강도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놈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릴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침략으로 생겨나고 살려온 침략의 원흉 미제를 철저히 소멸해버리지 않고서는 세계의 평화도, 진정한 인권도 담보할수 없으며 그에 추종하는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박근혜당과 같은 오물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와 번영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더더욱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고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똑똑히 모르고 마구 해담비면서 개심의 마지막회까지 다 차버린 미제에게 이제 차례일것이란 무시무시한 보복타격과 최후의 멸망뿐이다.

니절한 놀음으로 침략의 명분을 만드느라고 오그랑수를 쓰는 미제와 속시원히 맞붙어서 결판을 내자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립장이며 대결광중에 열이 떠서 제 죽을짓만 플라하는 총악한 원수들을 더이상 용납할수도, 살려둘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배두산총대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적들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할것입니다.》

연설자는 우리 혁명무력의 진두에 있는 백두의 선군명장이신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고 하면서 승리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삶의 태양이신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견결히 옹위하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을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평도만을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군에 빨찌산식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며 혁명선열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언제든지 멸적의 불을 내뿜을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일단 명명만 받으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백두의 폭풍과 같이 적의 아성을 단숨에 초토화해버리고 남강도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최후멸망의 준엄한 철추를 내리겠다는것을 우리 당과 조국, 인민앞에 엄숙히 맹세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326전선공장 로동자 김혁남이 연설하였다.

그는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귀중한 모든것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고 고안해낸 파멸적인 정치적사기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세계최악의 인권불보지이며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박근혜피폐당과 같은 어중이떠중이들과 야합하여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을 들고 나왔다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1%의 특권층속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에 99% 절대다수가 빈궁에 허덕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조차 부지할수 없이 종당에는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권생지옥 바로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의 험악한 현실이다.

연설자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온갖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다 보장받으며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가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국도 못 씻는 주체에 유엔무대를 도용하여 벌려놓은 비열한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우리의 참다운 인권에 먹칠을 하고 우리 국권을 해치려는 로물적인 선전포고이라고 단죄하였다.

무엇하해도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감히 건드리면서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리고 《인권》나발에 환장이 된 남강도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박근혜피폐당과 같은 어중이떠중이들과 야합하여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을 들고 나왔다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 아닐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의 로씨야 연방 방문과 관련한 보도

【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가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인 최룡해동지는 18일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올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로씨야연방 대통령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푸틴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와 친서를 최룡해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푸틴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것을 부탁하였다.

특사와 대통령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호혜적인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뜻깊은 2015년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와 접촉을 가일층 심화시키려는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여기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노광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김형준 로씨야 우사료대표령보좌관, 이고르 모르콜로프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최룡해동지는 20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로씨야연방 외무상과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경제, 무역 및 인도주의분야의 쌍무협력을 증진시키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쌍방은 조국해방 70돐과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다음해에 공동의 경축행사를 성대히 조직하며 대표단교류를 비롯한 두 나라사이의 레양과 협조를 활발히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과 무력증강을직접들을 중지하고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조선반도문제를 평화

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며 회담재개에 유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방문기간 노광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과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은 안드레이 까르파블로프 로씨야연방무력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로씨야 원동발전상을 각각 만났다.

쌍방은 군사, 경제, 무역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활성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을 폭넓게 교환하였다.

모스크바제류기간 특사와 일행은 레닌묘를 방문하였으며 위대한 조국전쟁중앙박물관과 크렘린성벽에 있는 무명전사묘, 크렘린 등을 돌아보았다.

특사와 일행은 21일부터 로씨야연방 하바롭스크변강과 연해변강을 방문하였다.

특사일행은 바체슬라브 슈보르트 하바롭스크변강행정장관과 올라지미르 미클루셴스키 연해변강행정장관을 각각 만나 날을 따라 종계 발전하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 맞게 공업, 농업, 립업, 교통운수, 체육, 문화 등 분야에서 지역간 협조와 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특사일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연방방문의 나날에 다녀가신 하바롭스크에 있는 로씨야정교사원인 성자 인노첸제 이르쿠츠키사원, 향토박물관, 올라지보스토크의 《이그나트》상업센터, 《올라드 홀레브》항공 등과 로씨야연방무력 동부군관구산하 제5군 지휘부, 태평양함대 군사력사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의 이번 로씨야연방방문은 오랜 역사를 가진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1 면에서 계속

우리 로동계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신평안대로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인권》광란국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한 초강경대응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말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초강경대응전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놀이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비악, 대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명만 내리시면 인민군대와 함께 전민항쟁에 용감 떨쳐나 가즈스러운 침략의 무리들을 썰도 없이 쓸어버리고 반미대결전을 신군조선의 최후승리로 빛낼 결의를 표명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만경대 남새전문농장 관리위원장 김영복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천만군민이 로동당만세를 부르며 인간의 값높은 삶을 누리고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활짝 꽃피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수도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어 나라의 정사료를 토의하고 농장원들의 아들딸들이 돈한돈 내지 않고 대학공부를 하며 국가에서 공립같은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여 무상으로 안겨주는 우리 공화국과 같은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그우에 독버섯처럼 돌아간 미국, 오늘도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살륙하며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흑인들을 마구 쫓아오는

미국이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모지이다.

음모와 날조로 세상사람들을 기만하여 《인권》문제를 떠들어대고있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위는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력대로 미국은 정치적으로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같은 형형색색의 적대정책을 추구하며 우리 인민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여온 불구대천의 천치원수이다.

우리는 애당초 미국주도하의 불순적대세력들이 우리를 결코 고안해낸 어떤 《결의》라는것들을 단 한번도 인정해본적이 없다.

참다운 인권이 모욕당하고 자주권과 국권이 침해당하는것을 수수방관할 우리 인민이 아니다.

연설자는 전제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쌀로써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전우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선군조선의 청년들의 이름으로 유엔의 이른바 《인권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참다운 인권에 대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극악한 도전으로, 불법무법의 정치협잡물로 낙인하고 이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비롯한 온갖 사랑과 혜택으로 새 세대들의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한사코 진북해보려고 미쳐달뛰는 원수들을 천백배로 징벌하며 그 씨종자들까지 신다면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 악의 소굴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승리의 축포

를 장쾌하게 쏘아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철추를 내리자!》 등의 구호들이 쓰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기세드높이 평장을 누벼나갔다.

그들의 열광마디에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권위를 감히 훼손시키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와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 악의 소굴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승리의 축포

대오에 수풀처럼 솟은 《조국결사수호의 맹세로 천단심장이 불탄다!》, 《복수는 총대로》, 《반미대결전》, 《인권결의》 전민배격》, 《미제는 평화의 파괴자》, 《평명만 내리시라!》 등의 선전화들과 손구호들에 반영되어 있었다.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시위대오마디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거부감과 병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천하에 못된것만 일삼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야말 참가자들의 열정의 함성이 새차게 울려나왔다.

평양시군민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피사하였다.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키기 위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소식에 접하고 분발해나선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

전투적인 화선지휘로 어장이 들끓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높이 발달되고 있는 혁명적근인정신은 선군시대를 대표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위대한 혁명정신입니다.》

지금 인민군대는 당정책옹위전의 기수가 되어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는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고있다.

얼마전 통천알바다 중심어장에서 수산부문 일군들을 만난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나누는 이야기

우리는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들의 작전과 실천적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집중적인 어로전투가 어떤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가에 대해 알고싶다.

부장 손성국: 우리는 지난 시기 조건에만 빙자하면서 물고기잡이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였다. 그러한 제회들이 정신을 번쩍 차렸것은 조선인민군대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

의 현지도소식을 접한 그때부터였다.

수산부에서는 동해안 각 수산사업소들의 고기배들을 총동원하여 통천알바다에서의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전개하고있다. 특히 동해안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올해 물고기잡이목표를 기어이 접할 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총진보다 기망회수를 2배이상 늘이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어로전을 벌이고있

다. 가까운 연안을 차지한 어로공들은 수백척의 작은 고기배를 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고있다. 그들은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바다를 떠날수 없으며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없이 어로작업을 벌이며 물고기잡이실적을 나날이 높이고있다.

기자: 일군들의 작전과 전투지휘에 대하여 알고싶다.

함경남도수산관리국 당위원회 책임서 정일수: 우리 수산관리국에서는 고기배들을 모두 바다

들모두가 어로공들과 크고작은 고기배들을 타고 물고기그물도 함께 당기며 결린 문제들을 즉시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수산관리국만이 아닌 강원도와 함경북도수산관리국, 성파 중앙의 일군들도 포구와 고기배들에서 혁명적으로 일판을 전개하고있다.

통천수산사업소 지매인 리철수: 우리 사업소의 일군들도 밤낮이 따로 없이 어로공들과 살며 투쟁하고있다. 어제는 덩쟁배를 타고 연안에서의 물고기잡이를 지휘하고 오늘도 포구에서 진공하루벌들의 가동상태를 직접으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어장실태와 50척이 넘는 크고작은 고기배들의 움직임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기동적인 대책을 세워나간 어로공들도 좋아하고 생산실적도 속속 높아지고있다.

부상 김규락: 오늘날 물고기잡이실적은 단순한 생산수자가 아니라,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고 그처럼 못한가를 명백히 가르치는 시금시이다.

우리는 인민군대취침준비대오의 앞장에서 기수가 되어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바다항기는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는데 자기의 본분을 다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풍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라 다가가야 합니다.》

각지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앞장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과학적인 어로전을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갈 일념으로 새로운 보복을 내세웠다.

생태조사와 결합된 어장선택

음직임을 판단하며 그에 따라 배의 위치를 신속히 옮긴다는것이다.

실제로 선장은 잡은 도루메기들속에 암컷이 많은가 수컷이 많은가, 암컷의 알이 무른가 굳은가 하는 지표들을 짚었다. 암컷이 많은 경우에는 대게로 도루메기떼가 현재 배가 위치한 주변에 상대적으로 오래 머물러있으며 수컷이 많은 경우에는 그 반

어느 배가 어느 해구에서 얼마만한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가, 이것은 드넓은 바다에서 집단적인 어로활동을 벌리는 선장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고기잡이에서 무시할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정보이기때문이다.

수산부에서는 통천알바다에서 어로활동을 벌리는 모든 배들에 이와 같은 소식을 정상적으로 알려주는 생산통보체제를 세웠다.

물론 모든 배의 선장들은

생산통보분석과 어황예측

다시말하여 선장들이 바다에서 수시로 변화되는 어황을 정확히 예측할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주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배 배의 선장들이 여러 해구에서 실적을 대비적으로 분석하고 물고기떼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데 기초하여 어장을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다.

물론 모든 배의 선장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물고기잡이전투는 낮에 밤을 이어 등트는 새벽에도 벌어진다. 각 수산사업소에서는 온 수많은 고기배들이 바다안개속에 어렴풋이 안겨온다. 수평선 멀리에서 아찔해가 불명이처럼 이글거리며 떠오르자 그 강렬한 빛에 망망대해는 금바래를 뿌린듯 반짝이기 시작한다.

새날을 맞은 통천알바다 중심어장은 더욱 악동한다. 우리는 어로공들의 투쟁소식을 보다 상세히 전하기 위해 가공모선에서 프란선 12184호에 올랐다.

인상 좋은 선장이 지금시간은 물고기잡이에 제일 좋은 시간이라며 새 어장에로의 출발을 재촉한다.

선장의 구령이 울린다.

인상 좋은 선장이 지금시간은 물고기잡이에 제일 좋은 시간이라며 새 어장에로의 출발을 재촉한다.

날바다에 메아리치는 당정책옹위전의 함성

● 강령도수산관리국의 프란선 12184호를 타고

관철전이다. 《우리는 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전에 귀향할수 없다. 가장 어려운 모험을 내게 맡겼다.》

선장실적에서 종소리가 울린다. 새 어장을 차지하였으니 곧 투망하겠다는 신호이다.

해풍에 탄 어로공들의 얼굴마다에 근엄한 빛이 어진다. 각기 자기 위치를 차지한 어로공들로부터 투망준비가 끝났다는 보고가 연방 들이온다.

이어 울리는 선장의 담탄 구령소리. 《기판미속으로, 투망!》

프란선 12184호는 오른배전에, 물고기배들이 바다안개속에 어렴풋이 안겨온다. 수평선 멀리에서 아찔해가 불명이처럼 이글거리며 떠오르자 그 강렬한 빛에 망망대해는 금바래를 뿌린듯 반짝이기 시작한다.

현지 보도

지금 이곳에서는 어로공들이 잡아온 물고기들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또 들어온다

배리리를 서서히 둘러머 다그드는 광경이 불수룩 호호하다. 확성기에서 선장 최강동무의 담탄 구령소리가 울린다.

《프란선 122호는 오른배전에,

가까운 어장에서 하루밤 통천수산사업소 고기배 1-동-12269호 어로공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깊은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잡고 얕은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잡고 가까운바다로 들어오는 물고기는 마구 나가 잡고 먼바다로 나가는 물고기는 따라다니 잡으며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통 통천수산사업소 고기배 1-동-12269호는 어장을 향해 전속으로 달리었고 물고기의 작은 목숨이었고 선장까지 포함하여 어로공은 5명밖에 되지 않았다. 1시간정도 지나 어장에 이르니 날이 저물었는데 사방 불천지였다. 많은 배들이 곳곳에서 물고기잡이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니 이곳 어장에서 빠져나갈 물고기가 있을상심지 않았다.

《반바다선단이 물고기잡이의 제 1체대라면 가까운바다를 차지한 우리는 제 2체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틀이면 큰 배들사이로 새어나온 물고기들을 작은 배들이 창문으로 훑듯 말끔히 잡는셈입니다.》

선장은 이렇게 말하며 배의 돛을 내리고 선원들과 작업준비를 서둘렀다. 이들이 물고기잡이에서 기본 쓰이고는 그들은 거망이었다. 거망은 얕은바다에서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잡을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그물이었다. 물고기를 유도하는 미끼그물과 더불어 2.8hp의 작은 목숨이었고 선장까지 포함하여 어로공은 5명밖에 되지 않았다. 1시간정도 지나 어장에 이르니 날이 저물었는데 사방 불천지였다. 많은 배들이 곳곳에서 물고기잡이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니 이곳 어장에서 빠져나갈 물고기가 있을상심지 않았다.

《반바다선단이 물고기잡이의 제 1체대라면 가까운바다를 차지한 우리는 제 2체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틀이면 큰 배들사이로 새어나온 물고기들을 작은 배들이 창문으로 훑듯 말끔히 잡는셈입니다.》

선구자들과 함께 달리는 혁신자들

통천수산사업소 선장 정성근동무는 작은 배를 가지고 적은 양의 연유로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혁신자이다. 얼마전에도 그는 정확한 어장선택, 거망과 자망의 동시이용과 같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으로 하루밤사이 여러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경험을 사업소에 일반화하였다.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가공모선에서

에 불이 일도록 갑판위에 위치한 가공장의 투입구로 물고기들을 밀어내었다. 그것을 되받아 상날에 불이 일도록 물고기들을 투입구에 넣는 김철준, 박국일 동무들, 모두의 일손이 신바람이 되었다.

랭동물고기가 쌓인다

갑판아래 가공물고기는 가공 1작업반원들이 물고기가공전투를 벌리느라 여념이 없다. 마치도 땅속에 솟은 가공공장을 방불케 하는 현경이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배워 밤낮이 따로 없이 전



가까운 어장에서 하루밤

이런 총정에 떠받들려 치열한 어로전투는 사나운 파도속에서도 계속되고있는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물걸기 작업이 시작된다.

원양기에 바줄이 련속 감기자 그물에서 서서히 물면이 떠오른다. 그물속의 펠릭 위는 모두메기들로 바다물이 죽기마를 뚫는다. 어선가가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온다.

커다란 그물속의 물고기들을 갑판에 데미로 쌓아놓는 프란선 12184호는 또다시 새 어장으로 이동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삼

신구자들과 함께 달리는 혁신자들

이 신선하게 보관하는 사업에 자기의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강령도수산관리국 선장 원정연동무는 수시로 변동되는 어황 조건에 맞게 어장탐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다은 고기배들파의 경험교화를 활발히 벌리며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

이 신선하게 보관하는 사업에 자기의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강령도수산관리국 선장 원정연동무는 수시로 변동되는 어황 조건에 맞게 어장탐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다은 고기배들파의 경험교화를 활발히 벌리며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

신구자들과 함께 달리는 혁신자들

이 신선하게 보관하는 사업에 자기의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강령도수산관리국 선장 원정연동무는 수시로 변동되는 어황 조건에 맞게 어장탐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다은 고기배들파의 경험교화를 활발히 벌리며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

신구자들과 함께 달리는 혁신자들

이 신선하게 보관하는 사업에 자기의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강령도수산관리국 선장 원정연동무는 수시로 변동되는 어황 조건에 맞게 어장탐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다은 고기배들파의 경험교화를 활발히 벌리며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

신구자들과 함께 달리는 혁신자들

이 신선하게 보관하는 사업에 자기의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강령도수산관리국 선장 원정연동무는 수시로 변동되는 어황 조건에 맞게 어장탐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다은 고기배들파의 경험교화를 활발히 벌리며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



